

‘세상에서...’ 21년만 리메이크, 원작과 뭐가 다를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21년만에 돌아온다

내일 첫 방송...뜨거운 관심·기대 공존 시대적 배경·배우·연출 등 차이 보여

1996년 대한민국을 가족애로 물들인 드라마가 있다. TV와 시청자도, 극장과 무대를 찾은 관객도, 대입모의고사시험지를 받아든 학생들까지도 눈물을 짓게 한 드라마. 좋은 작품의 감동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했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21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다.

21년 전 감동과 여운이 다시금 우리 곁으로 찾아온다. 9일 tvN 새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극본 노희경/연출 홍종찬)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지티스/이하 ‘세상에서’이 첫 방송되는 것.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2017년 버전의 ‘세상에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작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2017년 우리에게 어떤 드라마로 다가올 것인지.

◆ 1996 ‘세상에서’ vs 2017 ‘세상에서’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다른 점은 시대다. 원작은 1996년을, 리메이크작은 2017년을 배경으로 한다. 각기 다른 시대를 비춘 민중 작품은 미묘하게 결을 달리한다. 1996년 50대 중반 엄마와 2017년 50대 중반 엄마는 분명 다르다. 가족간 대화 내용이 거리감, 사용되는 어휘도 조금씩 다르다. 2017년 ‘세상에서’는 조금 더 현실과 가깝게, 그래서 더욱 많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배우다. 주인공 5인 가족 중 김영옥(할머니 역)을 제외한 원미경(인희 역), 유동근(정철 역), 최지우(연수 역), 최민희(정수 역)는 2017년 ‘세상에서’에 처음 출연한다. 이외에도 유재명(근덕 역), 염혜란(안순 역), 이희준(인철 역), 김태우(영석 역), 손나은(재영 역) 등 새로운 얼굴들이 2017 ‘세상에서’를 채운다. 배우가 달라지면 캐릭터도 조금씩 달라진다. 개성, 명

품연기 등 여러 이유로 받고 보는 배우로 불리는 이들이 2017년 ‘세상에서’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세 번째 다른 점은 연출이다. 2017 ‘세상에서’는 섬세한 연출력을 자랑하는 홍종찬 감독이 맡았다. 홍종찬 감독과 노희경 작가의 작업은 tvN ‘디어마이프렌즈’에 이어 두 번째. 당시 홍종찬 감독은 시니어들의 삶을 현실적이고도 감각적으로 담아내 웰메이드를 완성했다. 특히 노희경 작가 특유의 ‘사람에 대한 고찰’을 적절한 무게로 그려내 호평 받았다. 노희경 작가의 색깔이 가장 많이 묻어나는 ‘세상에서’가 홍종찬 감독의 손에서 어떻게 재탄생할지 기대된다.

◆ 1996년 ‘세상에서’ vs 2017 ‘세상에서’ 무엇이 같은가.

21년이 지났지만 드라마 ‘세상에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가족은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듯,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항상 곁에 있다는 이유로 늘 곁에 있을 거란 막연한 생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가족이다. ‘세상에서’는 가족의 의미, 부모에 대한 사랑 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다.

1996년 원작이 그러하듯, 2017년 리메이크작은 ‘세상에서’ 역시 가족이란 무엇인가, 삶의 좌표가 되는 부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다. 본인의 원작을 각색한 노희경 작가는 원작의 메시지와 감동을 그대로 담아냈다. 21년이란 짧은 시간이 흘렀다. 원작과 달라진 것도, 원작 그대로인 것도 있다. ‘세상에서’란 명칭이 어떻게 재탄생할지, 2017년에는 어떤 목직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지 기대된다.

한편 tvN 새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온 중년 부인이 맡지 않 단단을 받고,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 1996년 방송 당시 33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과 작품상을 거머쥔 수작으로, 21년만에 리메이크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12월9일 오후 9시 tvN에서 첫 방송된다.

멜로망스·민서·우원재·헤이즈...2017년 차트 휩쓴 언더독

2017년 음원 차트를 보면 여러 아티스트들의 활약 속에서 새롭게 치고 올라온 신종강자들이 유독 돋보였다. 사람들의 입소문, 그리고 SNS에서 화제가 되며 역주행의 신화를 쓴 노래부터 데뷔 전 참여한 노래로 차트를 휩쓴 신인가수까지 노래도 가수도 매우 다양했다. 전통적인 아이돌 가수들의 강세 속에서 차트 상위권을 장기간 점하며 2017년을 뜨겁게 달군 노래들을 꼽아봤다.

◆ 수란, 여자 자이언티 수식어

아깝지 않다

‘노개비’가 종영하고 열풍이 서서히 잦아들자 차트 상위권에는 트와이스의 ‘Knock Knock’, 아이유의 ‘사랑이 잘’ 등 음원 차트 강자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러다 4월 말에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수란의 ‘오늘 취하면’이 발매 후 음원 차트 1위를 휩쓴 것이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프로듀싱에 참여한 방탄소년단 슈가의 팬덤이 순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홍보 없이 차트를

휩쓴 데에는 곡이 좋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데뷔 4년차를 맞은 수란은 그동안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앨범에 피쳐링으로 참여하며 개성 넘치는 음색으로 여자 ‘자이언티’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왔다. 그러나 정작 꾸준히 발표했던 본인의 싱글곡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았다. 아이유, 싸이 등과 같은 음원강자와 붙임에도 불구하고 수란의 ‘오늘 취하면’은 차트를 휩쓸며 새로운 음원 강자의 탄생을 알렸다.



◆ 우원재, 쇼미더머니 6가 낀 괴물 래퍼

케이팝 채널 엠넷 ‘쇼미더머니6’의 최대 수혜자인 우원재. 그는 등장부터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랐다.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 속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한 랩으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우원

재의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외부적인 이슈 없이 대중에게 음악으로 인정받았다. 발매 직후 꾸준히 높은 공연, 그리고 거거서과 생된 영상들이 다시 화제에 오르며 역주행에 속도가 붙었고 음원 차트를 휩쓸기 시작했다.

여러 아이돌들의 캠페인과 음원 강자들이 포진한 하반기 음원 차트를 장기간 집권했던 멜로망스의 고공행진은 단방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는 단독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각종 공연과 축제 등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전국에서 멜로망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민서, 차트 롤런으로 음악방송 강세 소환까지

윤종신은 지난 11월 15일 ‘종니’의 여자 답가 버전인 율간 윤종신 11월호 ‘종아’를 발표했다. 가장자로는 신인 가수 민서가 참여했다. 물론 ‘종니’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자 입장에서 다시 쓰인 현실적인 가사와 민서의 애절한 보컬이 더해지며 ‘종니’와는 또 다른 매력을 완성했다. 많은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은 ‘종아’는 15일 동안 음원 차트 1위 자리를 지켰고, 가요계에 정식으로 데뷔하지도 않은 신인 가수 민서를 대세 반열에 올려놓았다.

예상을 뛰어넘는 큰 반응에 민서는 음악방송에 강세 소환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3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반란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음악은 물론 정식데뷔조차 하지 않은 신인가수 민서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슈가맨2’ 편성 확정...1월 14일 첫 방송

‘슈가맨2’ 편성 일정이 확정됐다.

종합편성채널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시즌 2(이하 ‘슈가맨2’)가 오는 1월 14일 오후 10시 30분에 첫 방송을 확정했다. 시즌에서 호흡을 맞췄던 유재석과 유희열 콤비가 MC로 나섰으며, 이번에도 추억의 인기가요와 해당 곡의 가수들을 소환해 신인 초 안방극장을 훈훈하게 만들 예정이다. 슈가맨2 편성 확정, 오는 1월 14일 10시 30분 첫 방송 투유가 돌아온다. 슈가맨2 편성 확정, 오는 1월 14일 10시 30분 첫 방송 투유가 돌아온다. 시즌이 주중에 방송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효리네 민박’과 ‘비긴어게인’이 큰 성공을 거둔 일요 예능 스타에 편성돼 눈길을 끈다. 현재 ‘전체관람가’가 방영되고 있는 시간대에 후속작으로 투입돼 JTBC 일요예능의 경쟁력을 높여줄 예정이다.

추억의 인기가요를 기억하는 세대 뿐 아니라 과거 인기곡의 리메이크 버전을 들려주며 젊은 층까지 감성 안착시킨 프로그램이라 일요일 밤 가족예능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슈가맨2’의 기획을 맡은 JTBC 윤현준 CP는 “시즌 기획 관련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시청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고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며 “더 많은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슈가맨2’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며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보고 싶은 ‘슈가맨’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제작진에게 꼭 제보해주셨으면 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은 한 시대를 풍미하다 사라진 추억의 가수 ‘슈가맨’을 소환해 과거의 히트곡과 근황 등을 듣고 해당 곡을 새로운 버전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 10월 20일에 시작된 시즌1은 39회에 걸쳐 방송됐다. 당시 화요 예능 화제성 순위에서 매주 정상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6%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 헤이즈, 음원 신데렐라의 탄생

헤이즈는 ‘저 별’ ‘돌아오지마’ 등 발표하는 노래마다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발표한 미니 앨범 ‘/// (너 먹구름 비)’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더블 타이틀 곡인 ‘널 너무 모르고’와 ‘비도 오고 그 래서’는 각종 음원 사이트 1위를 석권하며 음원 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비도 오고 그 래서’는 비오는 날 발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스토리를 완성했고, 동시에 정감 시즌이 시작되며 노래는 전국에서 울려퍼졌다. 빗소리와 애절한 헤이즈의 목소리, 그리고 지원사격에 나선 신봉선의 보컬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지며 2017년 여름을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매김했다.

◆ 멜로망스, 2017 차트 역주행 신화 주인공

‘종니’ 말고도 역주행의 신화를 쓰며 2017년 하반기를 강타한 노래가 있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남성 듀오 멜로망스의 ‘진불’은 인디돌 특집으로 꾸며졌던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공개되며

오늘의 운세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음력 10월 21일)



▶**띠** 남의 것이 커 보이나 등잔 밑이 어둡다. 바로 눈앞에 알찬 실적이 있으니 세심하게 살피라. 부모가 있어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 해 불안스러운 상태지만, 자제를 바르게 하고 정성을 다할 때 큰 이익이 앞에 다가온다.



▶**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기회를 노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라. 성급한 결단은 후회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 기다리면 결과는 행복으로 이어진다. 애정은 싫다고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격이다.



▶**띠** 물이 흘러 위로 올라가니 평범하지 않은 상태다. 강한 집념과 활동력을 갖고 행하면 대길하나 그렇지 못 하면 힘을 기르며 기다리라. 남을 생각할 줄 알라. 지나치게 독립적인 성격은 자멸하는 지름길이다.



▶**띠** 남이 보기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 같으나 사실 속빈 강정이다. 내일을 기하라. 항상 불안한 상태이니 정서적 안정이 요구된다. 자신이 하려는 일에 집념을 갖고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라.



▶**띠** 참고 견뎌내면 머지않아 밝은 미래가 도래한다.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라. 하늘에서 처음 만나게 한 사람과 정을 주고받는 마음씨를 기지라. 인생은 짧다. 두 갈래 길을 걷는 것은 모험이다.



▶**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엔 성과가 없지만, 성실하게 베풀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때 도움 줄 자 나타난다. 초기에는 다소 손해가 따르나 나중에는 큰 이익이 생길 수다. 기, 비, 오 성씨 형제간 인연이 희박하니 시련을 극복하기 힘들구나.



▶**띠** 연ખ은 일 있어도 감정을 억제하라. 자신도 위하고, 상대도 위하는 길이다. 주어진 여건을 주시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대성한다. 6, 7, 9월생은 건강을 챙겨라. 특히 여행 중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띠** 한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 여유로운 상태지만, 정신을 바로 하고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할 때다. 현재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 득이 없다. 양, 닭, 토끼띠와 협력을 이우라. 힘이 돼준다.



▶**띠** 큰 것보다 세세한 작은 일에 이득이 있다. 지나치지 말고 실속 있는 일에 매달리라. 사, 모, 흥 성씨는 남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다 오해받을 수 있으니 자중하라. 회색과 밤색 옷이 길하다.



▶**띠**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야 할 때다.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자기 위치를 알고 방심하면 남녀 문제로 구설이 생길 수. 현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정으로 관계가 머물 듯하니 크게 기대하지 말고 부담 없이 사귀라.



▶**띠**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매사에 힘이 드니 심신의 안정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인연에 이끌려 타인 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감성보다 이성애 의지하라.



▶**띠** 결단성이 부족해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부부가 함께 의논해 자금 조달에 힘쓰고 최대한 화합해야 벌인 일 진행이 순조로워진다. 4, 5, 6월생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삼가라.